

한국고용정보원,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 반도체, 조선 ‘증가’, 섬유 ‘감소’,
- 기계·전자·디스플레이·철강·자동차·금속가공·석유·화학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전윤종)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디스플레이,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9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반도체 및 조선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 전자·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디스플레이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금속 가공	석유· 화학
유지 (0.8%)	증가 (2.7%)	유지 (-0.1%)	감소 (-3.5%)	유지 (-0.3%)	증가 (5.1%)	유지 (-0.5%)	유지 (-0.3%)	유지 (-0.6%)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27년부터 건설기계산업 장비 수요가 증가하여 29년에 고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수출은 북유럽, 영국 중심으로 회복 중인 유럽 건설기계산업 시장 수요에 더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 시장의 자원 개발 수요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기계 완성차 생산은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8%(+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조선: LNG운반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선가 선박이 인도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

- 업황 회복에 따라 수주량 증가로 2026년 5월 기준 국내 조선소는 38.50백만 CGT의 안정적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 치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 2026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약 339.1억 달러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전자·디스플레이: 전자의 경우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수출·생산 확대, 디스플레이의 경우 OLED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수출, 생산이 증가하나, 가전은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OLED는 고부가가치 스마트폰 시장 확대 등에 따라 수출, 생산이 증가하나, LCD는 글로벌 공급경쟁 심화로 수출, 생산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4> 섬유: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강력한 하방 리스크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첨단소재 확대, 중동발 공급망 충격과 미국발 통상 규제, 중국의 저가 공세 등 강력한 하방 리스크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은 전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첨단소재 신증설 효과에 성장세이나, 중동발 공급망 충격과 범용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성장을 제약하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5> **철강** : 내수는 기저효과로 소폭 개선, 생산은 전년 수준, 수출은 EU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철강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내수는 전년도 건설 등 수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하나, 전방 산업별 온도차로 실제 체감되는 수요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은 수출 감소 및 설비 전환·일부 폐쇄 영향에도 내수 소폭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철강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3%(－4백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6> **반도체** :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시장은 AI 서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및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2025년 약 8,331억불 대비 약 94% 증가한 1조 6,173 억불 성장이 전망된다.

○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첨단공정(5나노 이하 등)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로, 2025년 대비 약 17% 증가한 2,375억불 투자가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1%(+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7> 자동차 : 내수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수출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는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신차 출시, AI·전기차 중심의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5%(-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8> 금속가공: 미국의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및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미국의 로봇·공작기계 등 산업기계에 대한 관세 확대 가능성과 중국의 공작기계 기술 자립화 실행방안에 따른 가격경쟁력 열세가 겹치며, 대미·대중 수출 모두 둔화가 예상되어 총수출은 전년 대비 5.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기차 부품 가공 수요 지속으로 내수 시장이 0~1% 수준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미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하여 생산은 전년 대비 3.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금속가공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3%(-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9> 석유·화학: 석유·화학 업황 불황에도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및 나프타 수급 불안 영향으로 하반기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산에 이어 여수까지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유럽 노후설비 폐쇄 등 생산·수출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제품 가격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단기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
- 2026년 하반기 석유·화학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붙임.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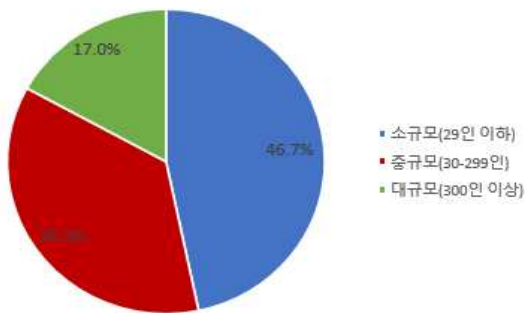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책임자	팀 장	권재혁	(043-870-8275)
		담당자	부연구위원	이재성	(043-870-8205)
담당 부서 <공동>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담당자	선임연구원	손영빈	(02-6009-3235)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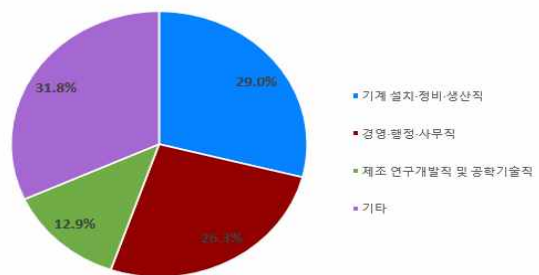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기반산업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6년 상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49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783천 명)의 3.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46.7%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6.3%,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 17.0% 근무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94.0%)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0%,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7.4%), 경남 창원시(4.4%), 경기 시흥시(3.7%), 경남 김해시(3.5%), 부산 강서구(3.3%), 충남 천안시(2.7%)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9.0%), 경영·행정·사무직(26.3%),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2.9%) 등으로 구성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5년 상반기(493천 명) 대비 0.1%, 3백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6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3.2천 명, 채용인원 19.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0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17.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p 낮고 전산업 평균(6.5%)과 비교하면 10.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9.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3.2%)',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8.4%)'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8.8%), 경영·행정·사무직(20.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14.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2.7%), 경남(15.5%), 충남(10.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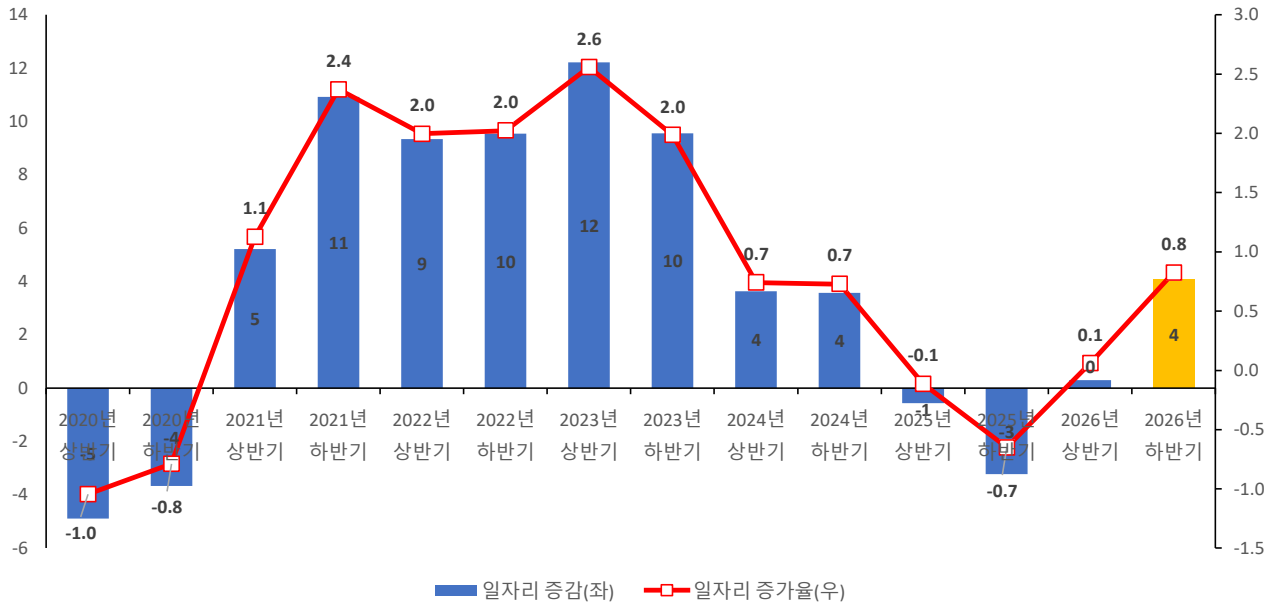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북유럽, 영국 중심으로 회복 중인 유럽 건설기계산업 시장 수요에 더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 시장의 자원 개발 수요, 인도/ 중국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가속화
 - 다만 중동 및 북미 건설기계산업 시장은 각각 이란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 및 금리 상승에 따라 하반기 수요 위축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생산) 2026년 건설기계 생산은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내수 물량 또한 국내외 고금리 기조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 판매 장비 (약 1.5만대) 교체 시기 도래로 인한 교체 수요 지속으로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투자) 반도체 수출 확대와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는 거시경제와 달리 민간 부문 건설투자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부동산 규제 등으로 부진한 상황
 - 특히 3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하며 약세 지속 중
 - 다만, 정부 대형 인프라 투자 (가덕도 신공항, 메가 프로젝트 등)에 따른 토목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27년부터는 건설기계장비 수요가 증가하여 2029년 고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6하반기
2.0	2.6	2.0	0.7	0.7	0.1	-0.7	0.1	0.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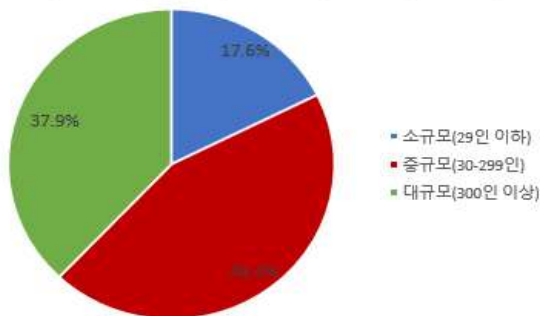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하반기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0.8%(+ 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부산, 충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선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과 해양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조물)을 제조하는 국가주력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6년 상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20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783천 명)의 0.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44.4%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 37.9%,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7.6%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36.1%), 울산 동구(28.5%)에 전체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군(13.8%), 부산 영도구(2.7%), 경남 창원시(2.7%) 등에도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1.6%), 경영·행정·사무직(20.2%),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3.4%) 등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5년 상반기(117천 명) 대비 2.9%, 3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중규모(30~299인) 사업체,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모두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6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8천 명, 채용인원 3.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4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10.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6.5%)과 비교하면 3.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7.3%)',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2.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8.0%), 경영·행정·사무직(17.5%), 건설·채굴직(13.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남(35.8%), 울산(33.9%), 전남(23.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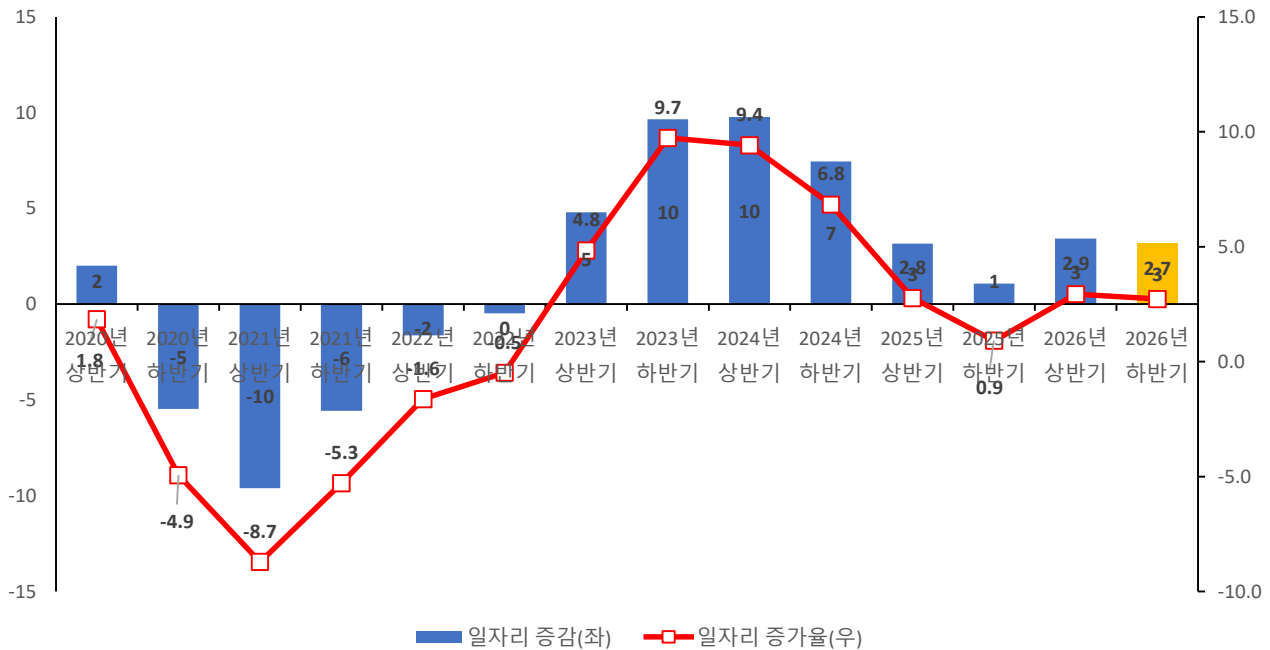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2~2023년 다량 수주한 LNG운반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선가 선박이 인도됨에 따라 전체 수출액 중 해당 선종의 비중이 각각 38.1%, 33.3%에 달할 전망
- (수출) 2026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약 339.1억 달러로 증가 전망
 - `26년 5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22.4억 불) 대비 16.8% 증가한 26.1억 불
- (환율 영향) 조선산업은 수출 중심 구조 및 장기간의 건조 기간으로 인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주액(계약선가)의 70~100%를 선물환 매도함
 - 환율의 영향은 제한적(환 헤지 비율은 각사별 상이)
 - 다만, 고환율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부 기자재 수입에 대한 비용 부담 가중은 우려됨
- (수주잔량)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량 증가로 2026년 5월 기준 국내 조선소는 38.50백만 CGT의 안정적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치 이상에 해당되는 일감을 확보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6하반기
-0.5	4.8	9.7	9.4	6.8	2.8	0.9	2.9	2.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하반기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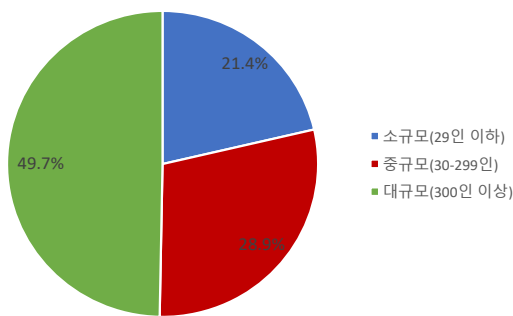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2.7%(+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남, 전북, 울산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자·디스플레이

(전자)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컴퓨터, TV, 대형가전, 센서 등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부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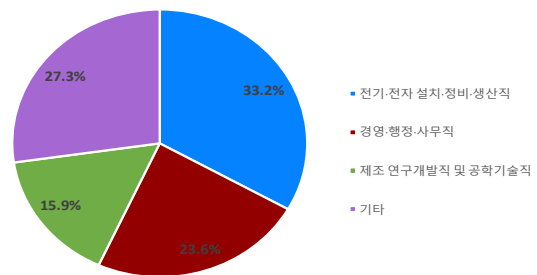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선도 중인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 제조로 구성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6년 상반기 현재 전자·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765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783천 명)의 4.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49.7%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28.9%,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21.4% 근무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7.9%), 전기장비 제조업(3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9.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0.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19.0%), 서울 영등포구(9.4%), 경기 용인시(5.3%), 경기 안산시(3.2%), 경기 화성시(3.1%), 경기 광주시(2.4%)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33.2%), 경영·행정·사무직(23.6%), 제조·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5.9%) 등으로 구성
- 전자·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5년 상반기(765천 명) 대비 0.0%, 2백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와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은 고용이 증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6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5.8천 명, 채용인원 21.0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8천 개
- 전자·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18.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6.5%)과 비교하면 12.1%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1.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7.0%)',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7.7%)'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9.5%), 경영·행정·사무직(15.3%),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1.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45.6%), 충남(7.7%), 경북(7.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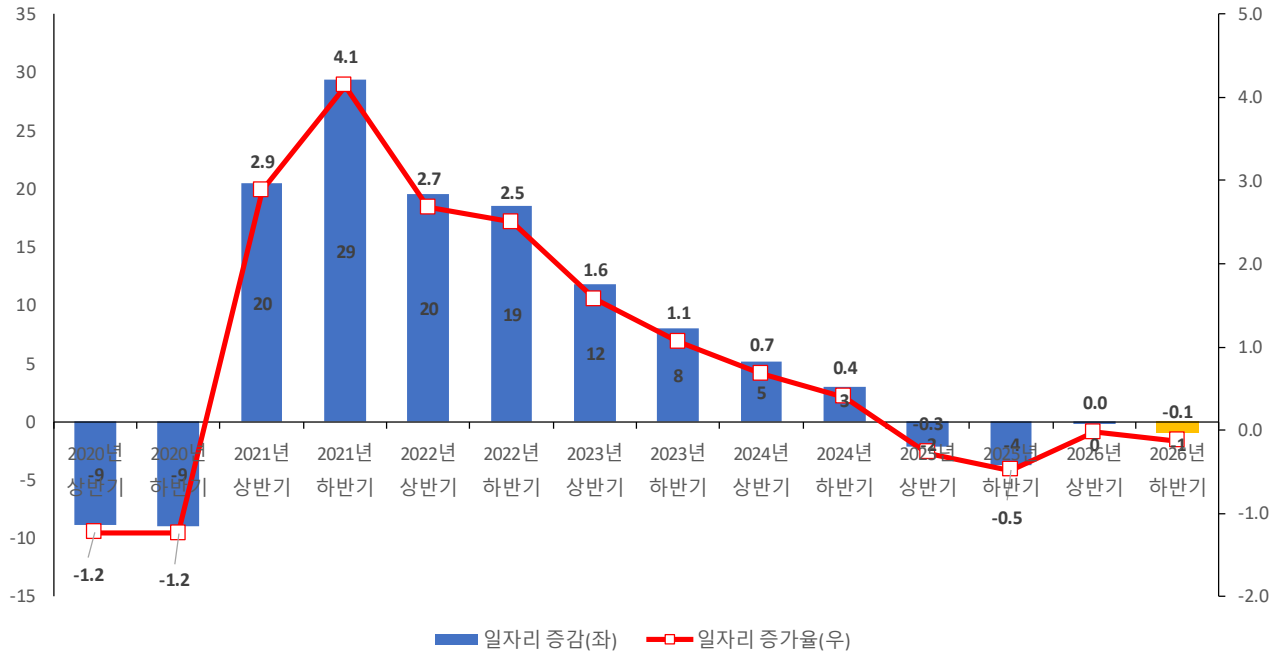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정보통신기기 증가, 가전 완만한 회복, OLED 증가, LCD 감소로 각각 전망됨
 - (정보통신기기)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능 SSD 수요와 단가 상승, 프리미엄 스마트폰 및 관련 부품 수요에 힘입어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80.0% 증가 전망
 - (가전)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인도·중남미 등 신흥국의 생활가전 수요 개선으로 하반기 수출은 1.5% 증가하나, 미국 등 주요국 수요 부진과 해외생산 확대가 증가 폭을 제한할 전망
 - (디스플레이) OLED는 고부가가치 스마트폰 시장 확대, IT 제품의 OLED 대체화 및 신제품 출시로 전년비('25) 4.4% 증가한 약 79억불, LCD는 글로벌 공급경쟁 심화로 전년비('25) 16.7%(5.9) 하락한 약 15억불 전망
- (생산) 정보통신기기 증가, 가전 소폭 증가, OLED 및 LCD 하락 전망
 - (정보통신기기) SSD 중심의 수출 확대와 단가 상승, 기업용 수요 증가로 하반기 생산은 전년동기비 70.5% 증가 전망
 - (가전) 수출·내수 개선과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 기저효과로 하반기 생산은 1.2% 증가하나, 해외생산 확대와 국내 생산능력 위축으로 회복 폭은 제한적
 - (디스플레이) OLED 주요 세트 제품의 출시 이월에 따라 전년비 7.3% 하락한 5.3억대 출하 전망, LCD부품(반도체 등) 원가 상승에 의한 중저가 세트 제품 생산량 하향 조정으로 전년비 9.0% 감소한 11.8억대 예상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전자·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6하반기
2.5	1.6	1.1	0.7	0.4	-0.2	-0.4	-0.0	-0.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하반기 전자·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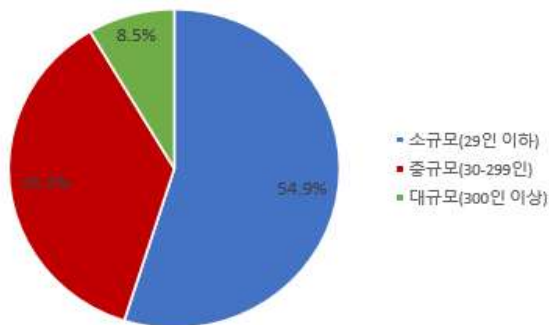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0.1%(-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대구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섬유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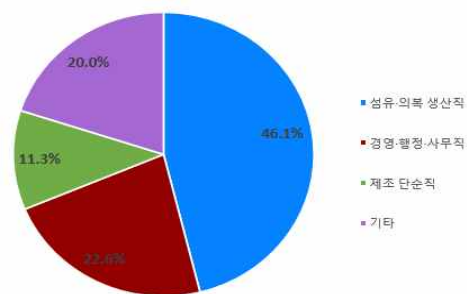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6년 상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4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783천 명)의 0.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54.9%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6.6%,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 8.5% 근무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62.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5.0%)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5%), 경기 포천시(3.5%), 경북 구미시(3.4%), 경기 양주시(3.3%), 서울 강남구(3.1%), 대구 달서구(2.8%)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6.1%), 경영·행정·사무직(22.6%), 제조 단순직(11.3%) 등으로 구성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5년 상반기(146천 명) 대비 3.0%, 4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6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6.9천 명, 채용인원 6.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4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6.0%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4%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6.5%)과 비교하면 0.5%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4.3%)',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1.6%)',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6.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4.6%), 제조 단순직(16.8%), 경영·행정·사무직(15.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44.6%), 경기(15.8%), 대구(13.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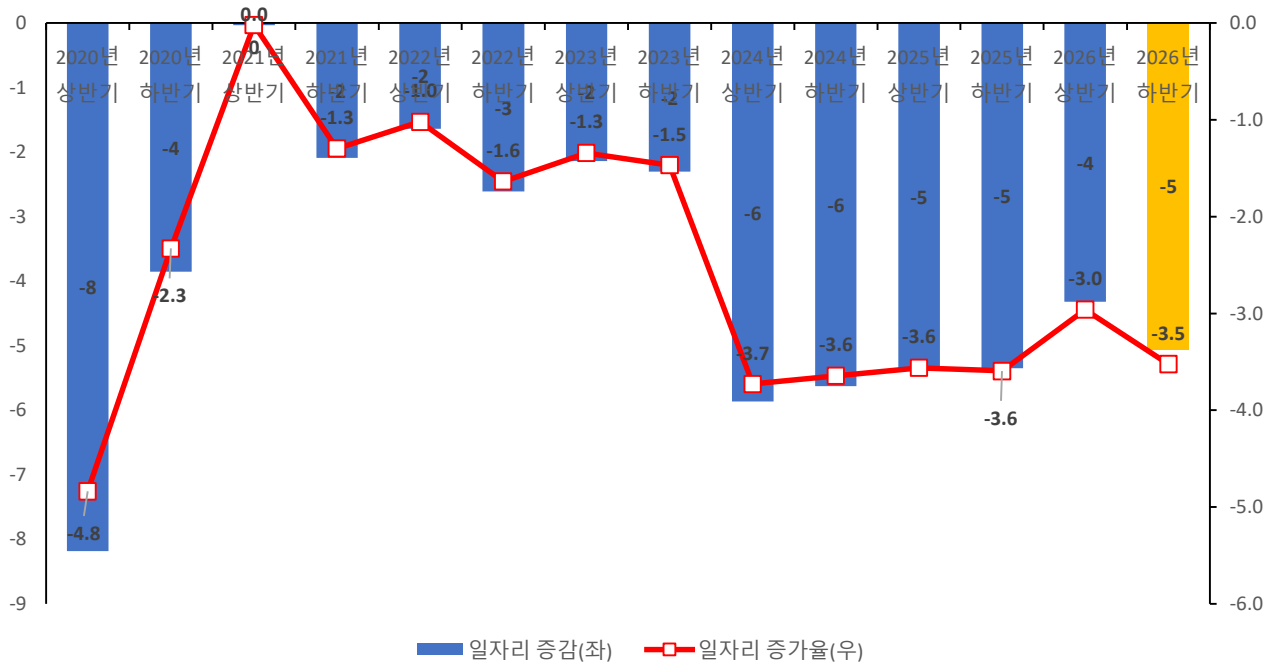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첨단소재 확대, 중동발 공급망 충격(원가/물류비)과 미국발 통상 규제, 중국의 저가 공세 등 강력한 하방 리스크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증가요인) 미국 내 대중국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글로벌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소비 증대, K-패션 수요 확대, 첨단소재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수출 확대 등
 - (감소요인)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가 및 물류비 폭등, 미국발 보편 관세 및 통상 불확실성 지속, 중국산 저가 제품의 제3시장 덩핑 및 시장 잠식 등
- (수입) 고유가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과 중국발 저가 물량 유입,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따른 수입 대체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증가
 - (증가요인) 원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인상, 중국 직구 플랫폼의 국내 잠식, 해외 생산 역수입 지속 확대, 국내 생산 중단 품목의 수입 대체 수요 발생
 - (감소요인)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입비용 부담,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 등
- (생산) 전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첨단소재 신증설 효과에 성장세이나, 중동발 공급망 충격과 범용 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성장을 제약하며 완만한 회복 예상
 - (증가요인) 전년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 첨단소재(탄소섬유, 아라미드) 증설분 본격 가동,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소재 투자 확대, 고기능성 의류 소재 수요 지속
 - (감소요인)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가 폭등, 해상운임 급등 및 물류 차질에 따른 채산성 훼손, 범용 부문의 구조적 감산 및 수입산 시장잠식 등
- (내수) 첨단소재 공급 확대와 의류 소비 회복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이거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성장을 제약하며 완만한 성장에 그칠 전망
 - (증가요인) 첨단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 증설 가동, F/W 의류 수요 회복 및 기저효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정책, 중저가 의류 및 수입 소재 유입 확대
 - (감소요인) 중동 사태에 따른 원료가 급등, 고유가발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우려, 국내 범용섬유 생산 기반 약화, 가계부채 체증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제한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6하반기
-1.6	-1.3	-1.5	-3.7	-3.6	-3.6	-3.6	-3.0	-3.5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하반기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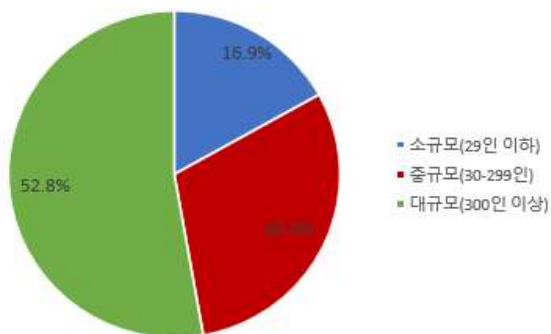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3.5%(-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대구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철강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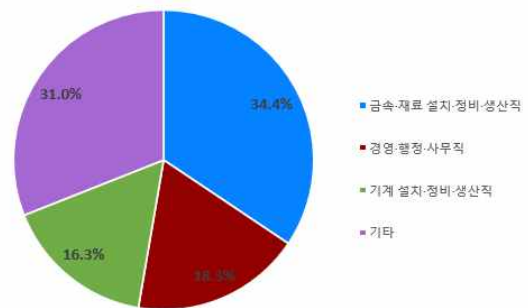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6년 상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6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15,783천 명)의 0.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절반 이상인 52.8%가 종사하고 있으며 중 규모(30~299인) 사업체에 30.3%,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16.9%가 종사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22.8%), 충남 당진시(11.7%), 경남 창원시(7.9%), 전남 광양시(4.5%), 울산 울주군(4.3%), 인천 동구(2.7%)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4.4%), 경영·행정·사무직(1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6.3%) 등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5년 상반기(116천 명) 대비 0.2%, 2백 명 감소
 -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소규모 사업체(29인 이하)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6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2천 명, 채용인원 4.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9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17.1%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6%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6.5%)과 비교하면 10.6%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2.8%)',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4.6%)',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7%)'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6.0%), 제조 단순직(17.7%),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6.5%)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5.9%), 경남(15.5%), 충남(14.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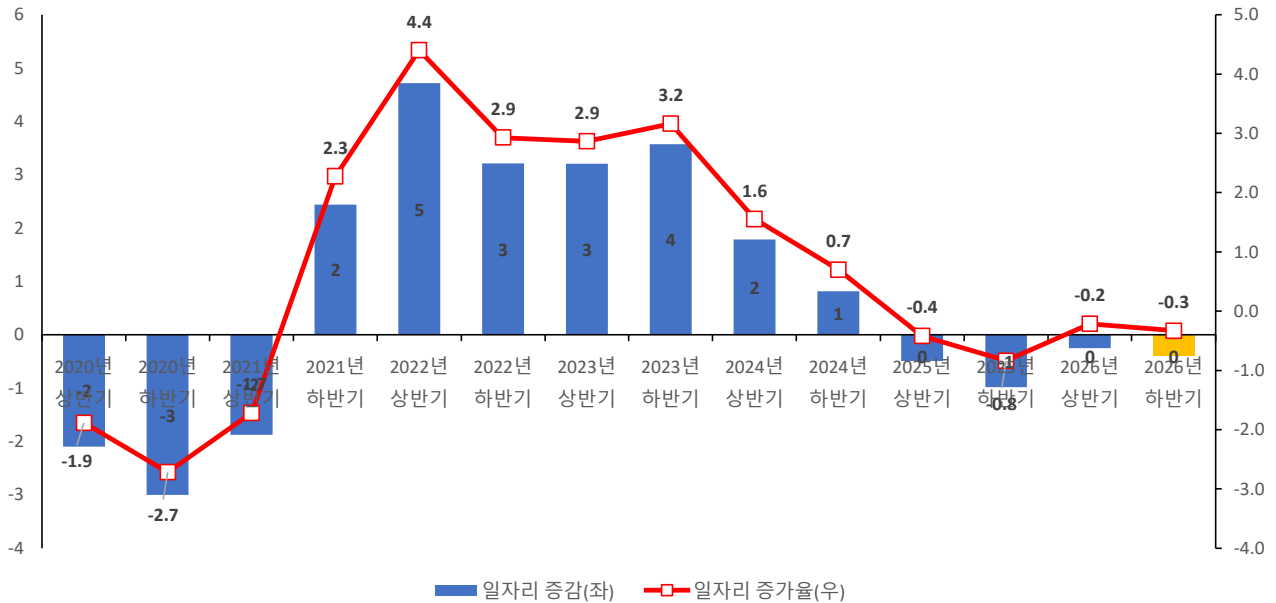
경기전망

- (종합) 내수는 기저효과로 소폭 개선되나, 생산은 전년 수준에 머물고, EU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은 감소 전망
- (내수) 전년도 건설 등 수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하나, 전방산업별 온도차로 실제 체감되는 수요 부진은 지속될 전망(+3.2%)
 - * (건설) 반도체 공장·SOC 토목 물량에도 주택 침체로 봉형강 위축 / (자동차) 신차효과로 강판 수요 견조 / (조선) 대형 탱커 인도 비중 상승으로 중후판 내수 전년 수준 방어
- (수출)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7.1.)에 따른 對EU 물량 위축 및 글로벌 수요 정체*로 감소 전환($\Delta 3.6\%$)
 - * 철강 수요(전년비): (전세계) '25 $\Delta 1.9\%$ $\rightarrow$ '26 전망 $+0.3\%$, (중국) '25 $\Delta 7.1\%$ $\rightarrow$ '26 전망 $\Delta 1.5\%$
- (생산) 수출 감소 및 설비 전환·일부 폐쇄 영향에도 내수 소폭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수준 유지(+0.3%)
- (수입) 중국산 등 보호무역·내수 부진으로 철강재 전체 수입은 감소($\Delta 5.0\%$)한 반면, 열연·반제품 외 수급상 수입은 일부 저가 대체재 유입으로 소폭 증가(+2.0%)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6하반기
2.9	2.9	3.2	1.6	0.7	-0.4	-0.8	-0.2	-0.3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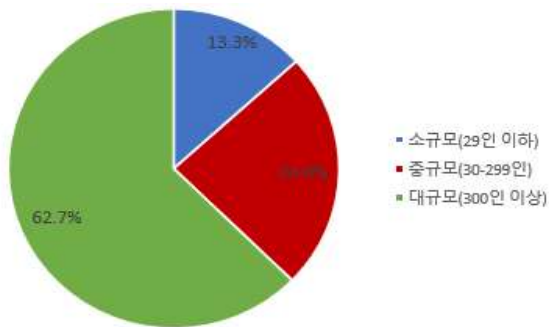
- 2026년 하반기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0.3%(-4백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충남, 인천, 경기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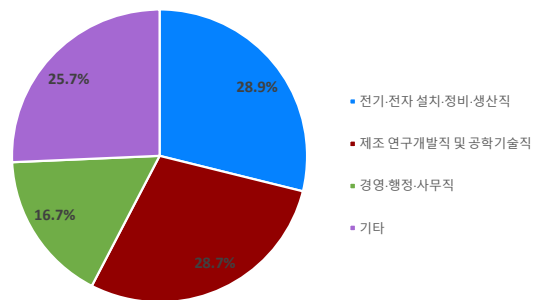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6년 상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5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783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62.7%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24.0%,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3.3% 근무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8.7%)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1.3%)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3.5%), 경기 화성시(7.8%), 충남 천안시(6.0%), 충북 청주시(5.7%), 경기 평택시(5.2%), 경북 구미시(3.8%)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8.9%),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8.7%), 경영·행정·사무직(16.7%) 등으로 구성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5년 상반기(150천 명)에 비해 4.2%, 6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 (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모두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6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9.7천 명, 채용인원 8.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4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14.8%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6.5%)과 비교하면 8.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3.8%)',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18.9%)',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3.5%)'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8.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2.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5.6%)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1.1%), 충남(16.2%), 충북(11.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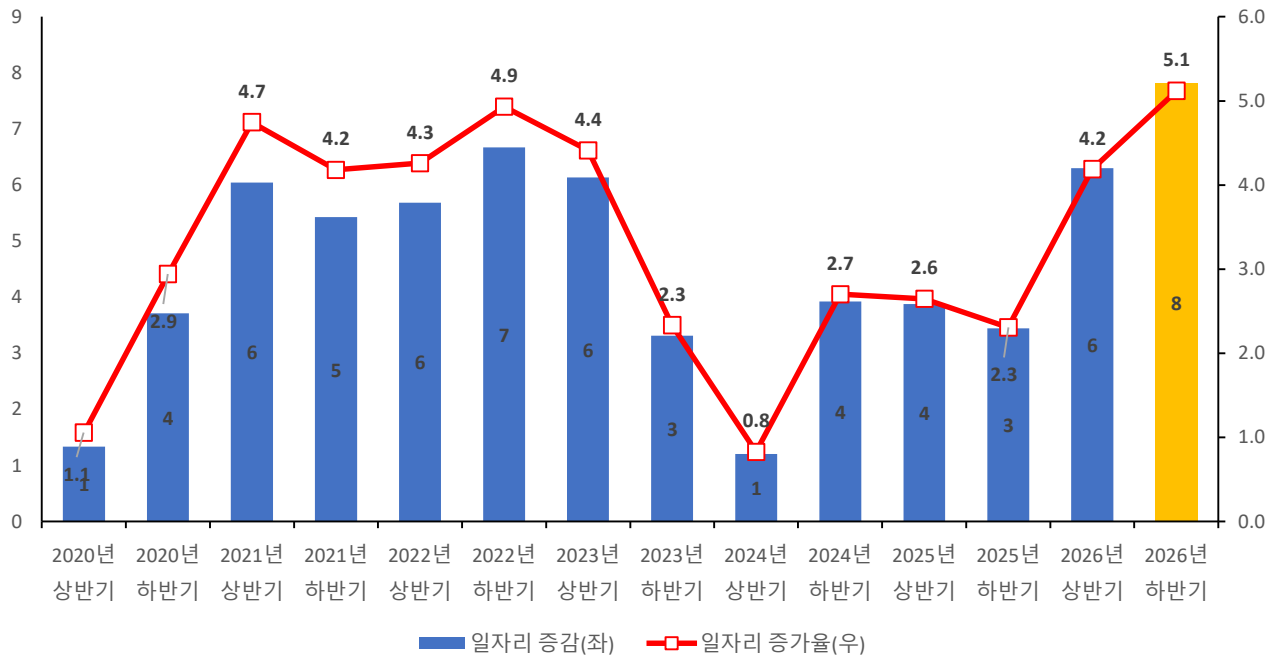
경기전망

- ('26년 글로벌 시장 전망) '26년 반도체 시장은 AI 서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및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25년 약 8,331억 불 대비 약 94% 증가한 1조 6,173 억 불(출처 : Omdia)로 성장 전망
 - (메모리) AI 및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서버용 D램과 SSD수요 강세로 '25년 2,284억 불에서 약 3.9배 이상 증가한 8,864억 불로 성장, 전체 반도체 내 메모리 비중은 '25년 27%에서 '26년 55%, '27년 60%까지 상승 전망
 - (시스템반도체) AI 가속기(GPU·NPU) 중심의 반도체 수요 확대와 차량용, 산업·에너지 분야 SoC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4% 성장할 전망
- ('26년 수출 전망) '26년 반도체 수출은 HBM, DDR5 등 첨단 메모리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2.2% 증가한 4,200억 불 내외 전망
 -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 일반 서버용 D램 수요 발생 등으로 '26년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99.2% 증가한 3,557억 불 전망
 - (시스템, 광개별) AI 수요 기반 반도체 호황으로 메모리반도체 대비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26년 시스템반도체 및 광개별소자 수출 역시 전년 대비 약 17.9% 증가한 643억 불 전망
- ('26년 투자 전망) '26년에는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첨단공정(5나노 이하 등)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로, '25년 대비 약 17% 증가한 2,375억 불 투자 예상
 -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선단공정 위주의 증설 흐름이 이어지며 투자 동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6하반기
4.9	4.4	2.3	0.8	2.7	2.6	2.3	4.2	5.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하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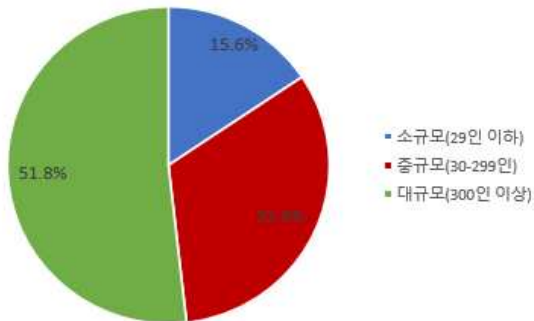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5.1%(+ 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자동차는 최근 안정성 및 성능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화학, 섬유 등 5,0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업제품이 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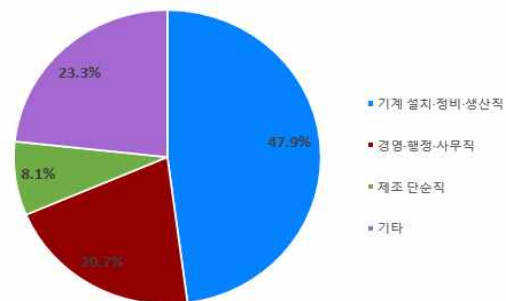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6년 상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40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783천 명)의 2.6%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51.8%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2.6%,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5.6%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서초구(11.0%), 울산 북구(9.5%), 충남 아산시(5.8%), 경기 화성시(5.1%), 경북 경주시(3.6%), 경남 창원시(3.5%), 경기 평택시(3.4%)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7.9%), 경영·행정·사무직(20.7%), 제조 단순직(8.1%) 등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25년 상반기(403천 명) 대비 0.1%, 4백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6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4.6천 명, 채용인원 12.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7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11.9%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6.5%)과 비교하면 5.4%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6.9%)',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1.0%)',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3.4%)'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52.9%), 경영·행정·사무직(16.7%), 제조 단순직(12.0%)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3.0%), 충남(15.0%), 울산(11.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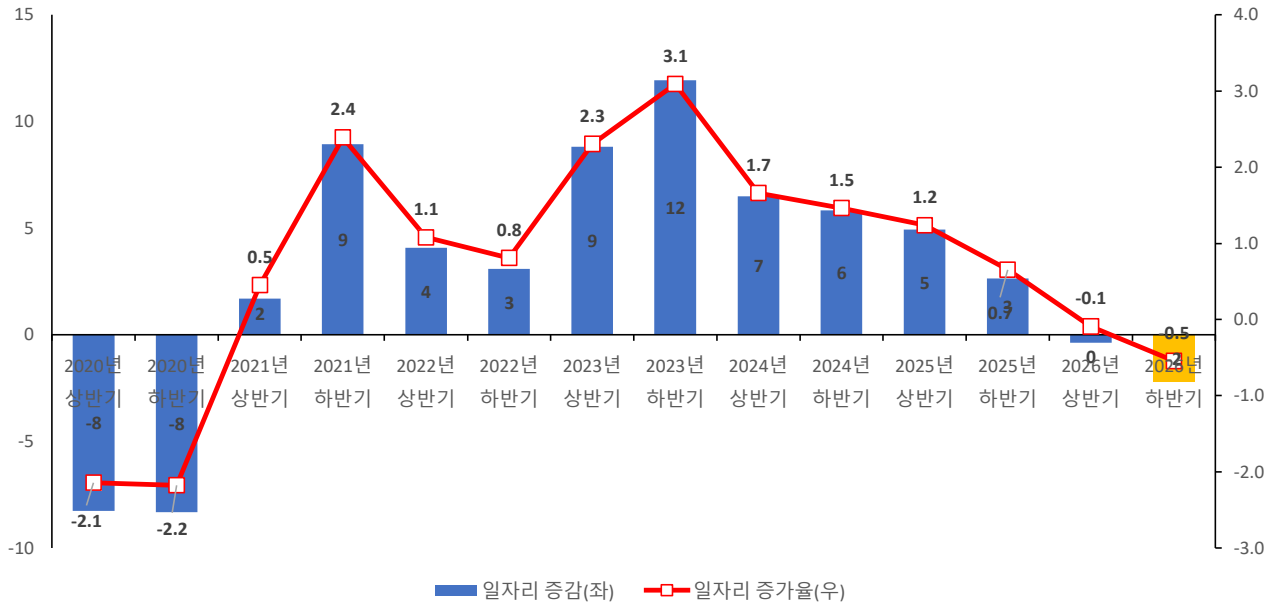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6년 하반기 자동차 산업 경기는 상반기 생산차질 물량의 이연, 신차 출시와 친환경차 수출 증가와 같은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내수와 생산은 소폭 상승,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계 전기차의 국내외 점유율 확대와 전기차 생산 현지화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내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신차 출시, AI·전기차 중심의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87.5만 대 전망
 - * 2026년 연간 내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71만 대 수준 전망(KIET)
- (수출)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호실적을 보이며 하반기 전년 수준인 132.5만 대 전망
 - * '26년 1~6월 자동차 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59.5억 달러 기록
 - ** 상반기 자동차 수출 추이(억 달러) : ('23)356(역대 4위) → ('24)370(1위) → ('25)363(2위) → ('26)359(3위)
- (생산) 중동전쟁 등 대외 환경의 불안과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견업체의 생산활동 강화, 수출 및 내수 증가로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03.5만 대 전망
 - * 2026년 연간 기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13만 대로 4년 연속 400만 대를 상회할 전망(KAMA)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6하반기
0.8	2.3	3.1	1.7	1.5	1.2	0.7	-0.1	-0.5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0.5%(-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는 경기, 충남, 경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금속가공

금속가공업은 금속을 절단, 성형, 조립 및 가공하여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 발생기 및 난방용 보일러,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철선 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가공 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주로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종

근로자 현황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6년 상반기 현재 금속가공 업종 근로자 규모는 334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783천 명)의 2.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62.4%의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30.6%,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7.0%가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6.1%), 경남 김해시(4.4%), 경기 시흥시(3.9%), 경기 안산시(3.6%), 부산 강서구(3.6%), 경기 김포시(3.4%)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4.4%), 경영·행정·사무직(24.0%),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22.8%) 등으로 구성
- 금속가공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5년 상반기(338천 명) 대비 1.1%, 4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규모(30~299인) 사업체,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6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6.9천 명, 채용인원 13.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4천 개
 - 금속가공 업종의 미충원율은 20.2%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p 높게 나타났다으며 전산업 평균(6.5%)과 비교하면 13.7%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7.0%)',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1.3%)'에 이어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6.4%)'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27.9%),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5.6%), 제조 단순직(18.2%)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3.3%), 경남(13.4%), 충남(12.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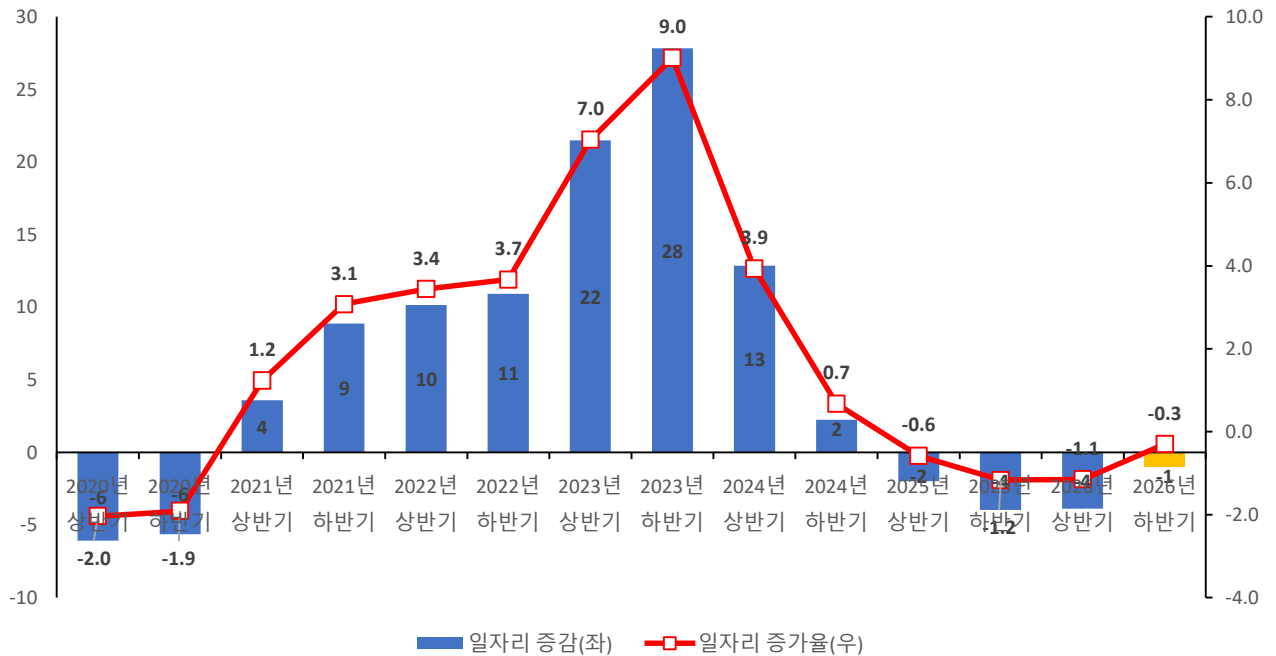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2025년 11월 누계 기준 공작기계 수출 수주액은 약 1.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며 글로벌 제조업 설비투자 회복이 반영되었으나, 완제품 수출 기준으로는 유럽(독일 제외, △22.8%), 미국(△11.8%), 중국(△4.5%) 등 주요 시장에서 감소하며 전체 수출은 11.4% 감소
 - 2026년에는 미국의 로봇·공작기계 등 산업기계에 대한 관세 확대 가능성과 중국의 공작기계 기술 자립화 실행 방안(2025.9. 발표)에 따른 가격경쟁력 열세가 겹치며, 대미·대중 수출 모두 둔화가 예상되어 총수출은 전년 대비 5.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생산) 2025년 11월 누계 기준 국내 공작기계 총수주액은 약 2.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며 정체 흐름을 이어갔으나, 내수 수주는 8,900억 원으로 11.6% 감소해 수출 수주 증가분이 이를 상쇄하는 구조
 - 2026년에는 전기차 부품 가공 수요 지속으로 내수 시장이 0~1% 수준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미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하여 생산은 전년 대비 3.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투자) 전기차 부품 가공 수요 산업의 설비투자가 이어지며 2026년 공작기계 내수 시장은 2025년 대비 0~1% 수준의 소폭 증가가 예상
 - 다만 대미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수요산업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금속가공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6하반기
3.7	7.0	9.0	3.9	0.7	-0.6	-1.2	-1.1	-0.3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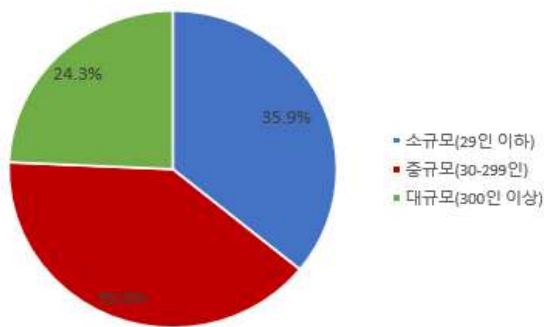
- 2026년 하반기 금속가공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금속가공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0.3%(-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대구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석유·화학

석유·화학 업종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원료를 화학적 변환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 합성고무, 화학비료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석유 또는 천연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를 합성원료로 다양한 유기 화학물을 제조하는 부문과 각종 무기화학물 및 유도체를 제조하는 부문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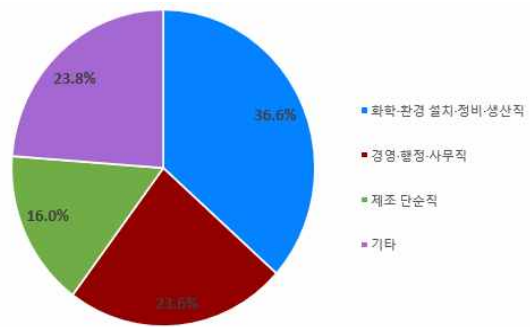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6년 상반기 현재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규모는 48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783천 명)의 3.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39.8%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35.9%,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24.3%가 근무
 - 산업별로 보면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50.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5.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3.9%)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5.4%), 서울 영등포구(3.0%), 경기 시흥시(2.4%), 울산 남구(2.4%), 경기 김포시(2.4%), 인천 남구(2.3%)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36.6%), 경영·행정·사무직(23.6%), 제조 단순직(16.0%) 등으로 구성
-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5년 상반기(486천 명) 대비 0.6%, 3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6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9.0천 명, 채용인원 15.7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3천 개
 - 석유·화학 업종의 미충원율은 17.6%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6%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6.5%)과 비교하면 11.1%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7.1%)',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4.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4.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제조 단순직(32.6%),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26.6%), 경영·행정·사무직(19.9%)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8.5%), 충남(11.0%), 경남(7.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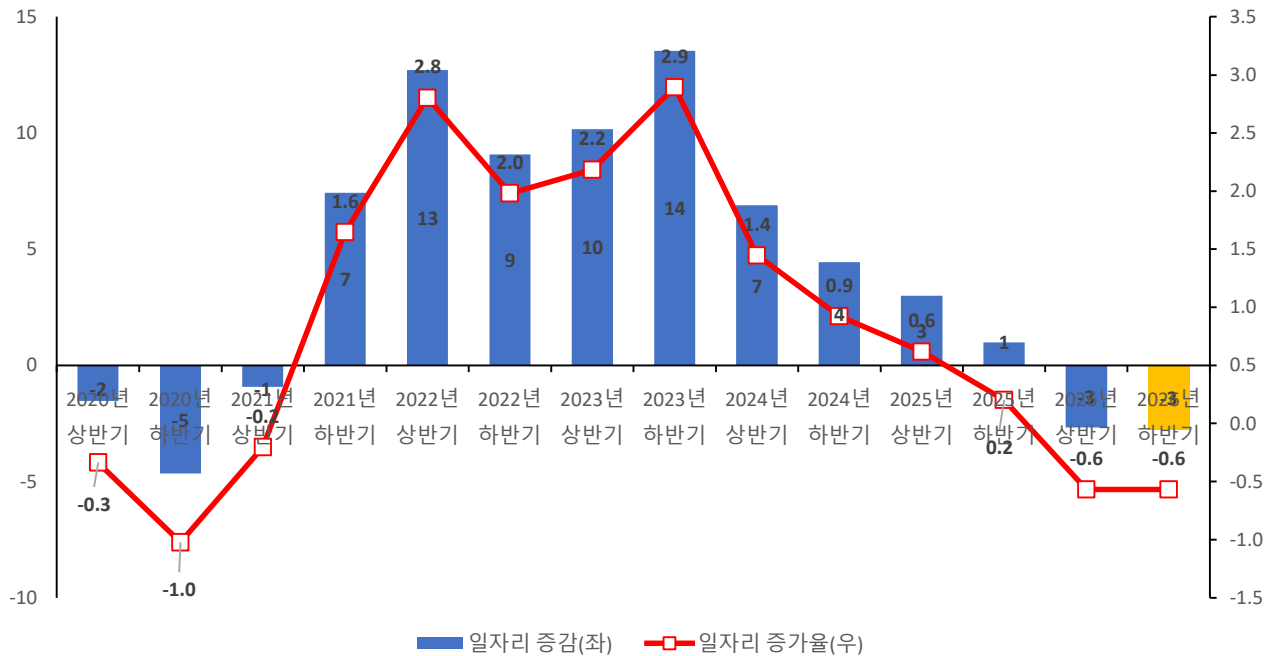
경기전망

- 석유화학산업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및 나프타 수급 불안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업황 부진이 지속될 전망
- (긍정요인) 대산에 이어 여수까지 석유화학 업계 사업 채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유럽 노후 설비 폐쇄 등 생산·수출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제품 가격 및 수출 단가 상승으로 단기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 존재
- (부정요인)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원료비 및 물류비 확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부담 가중 우려

2026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6하반기
2.0	2.2	2.9	1.4	0.9	0.6	0.2	-0.6	-0.6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하반기 석유·화학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업종 고용 규모는 2025년 하반기 대비 0.6%(-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북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용어정의>

- ▷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일자리 수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 ▷ 일자리 증가율(%) = $\frac{\text{이번기 일자리 증감}}{\text{전년 동기 일자리 수}} \times 100$
- ▷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판단 기준
 - 일자리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 ▷ 미충원율(%) = $\frac{\text{미충원인원}}{\text{구인인원}}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업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업종별 일자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업종별 산업(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기준>

업종	(분류코드)분류명
기계	(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2)유압 기기 제조업, (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2914)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5)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7)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3)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5)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20)철도장비 제조업, (31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조선	(3111)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2)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전자·디스플레이	(2621)표시장치 제조업, (2622)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1)컴퓨터 제조업, (2632)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41)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2660)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730)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40)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20)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0)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1)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조명장치 제조업, (2851)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2)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0)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272)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섬유	(1310)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21)직물 직조업, (1322)직물제품 제조업, (1330)편조 원단 제조업, (1340)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1)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92)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39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11)겉옷 제조업, (1412)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3)한복 제조업, (1419)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0)모피제품 제조업, (1430)편조의의복 제조업, (1441)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050)화학섬유 제조업
철강	(2411)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2)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3)철강관 제조업, (2419)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철강 주조업, (2432)비철금속 주조업
반도체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3011)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자동차 제조업, (3020)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1)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3)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9)자동차용 기타 부품 제조업, (3040)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금속가공	(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3)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2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1)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2)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2593)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2594)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석유·화학	(1910)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21)원유 정제처리업, (1922)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0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3)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1)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32)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2041)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9)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211)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9)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